

廣東 粵語와 한국 한자어의 음운 비교 연구 — 入聲韻, 陽聲韻을 중심으로

임진호* · 김미랑**

【목 차】

- | | |
|-------------------|----------------------|
| 1. 서론 | 3. 韓·粵 漢字語 音韻의 대조 분석 |
| 2. 粵·韓 漢字語의 語音 형성 | 1) 韓·粵의 入聲韻 비교 |
| 1) 粵語의 語音 형성 | 2) 韓·粵의 陽聲韻 비교 |
| 2) 한국 漢字語의 語音 형성 | 4. 결론 |

【초록】

주지하다시피 우리말에서 차용해 활용되고 있는 한자음에는 지금까지도 중국 고대 한어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연구에서 입성운자를 중심으로 양주방언과 우리말 한자어 입성운미의 대응관계를 살펴 본 바 있으나, 중국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국의 특정 지역만을 가지고 한·중 양국의 入聲韻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광둥어에도 고대한어의 입성운과 양성운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광둥어를 중심으로 우리말 한자어의 음운 대응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광둥어 일명 粵語와 우리말 한자음의 형성을 조사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고음과 粵語의 대표 방언인 廣州話와 우리말 한자어 간의 발음의 대응관계를 정리 및 분석하여 음운학의 연관성을 밝혀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粵語 중에는 우리말의 한자음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경우가 적지 않은 바 광둥지역의

* 초당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jhim@cdu.ac.kr)

** 초당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mrkim@cdu.ac.kr)

학생들이 우리말을 학습할 때 두 언어 간에 나타나는 음운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그 대응관계를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우리말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키워드】 광둥어, 한국 한자음, 입성운, 양성운, 한어중고음

1. 서론

주지하다시피 우리말에서 차용해 활용되고 있는 한자음에는 지금까지도 중국 고대 한어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연구¹⁾에서 입성운자를 중심으로 양주방언과 우리말 입성운미의 대응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국의 특정 지역만을 가지고 한·중 양국의 入聲韻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이에 중국의 7대 방언²⁾ 가운데 광둥어(粵語), 객가화(客家話), 조산(潮汕) 방언에도 고대한어의 입성운과 양성운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³⁾ 지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광둥어라고 지칭하는 粵語⁴⁾를 중심으로 우리말 한자음의 음운 대응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粵語는 방언 중 사용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광둥어에도 당송시대의 韻尾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한국 한자음에 대한 음 유사도는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粵語는 0.430에 이르고 있어 우리말의 한자음

-
- 1) 유가·임진호, 「중국어와 한국어의 入聲尾 비교 연구 - 양주(揚州)방언의 入聲字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63집, 2019, pp.145-164.
 - 2) 강은지, 「중국 방언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를 위한 제언 - 음절 말 자음 습득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2호, 2020, p.219. 제인용. 중국의 방언은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10개 방언, 혹은 8개 방언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연구자들은 중국 방언을 크게 7개의 방언으로 나누고 있다. 袁家驊(2001)의 7분법에 따르면, 관화 방언(官話), 오 방언(吳語), 감 방언(贛語), 상 방언(湘語), 민 방언(閩語), 월 방언(粵語), 객가 방언(客家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방언권에는 다시 수백 개 이상의 하위 개별 방언이 있어 재분류를 할 수 있다.
 - 3) 黃金寶, 「試論廣東地區學生學習韓國語漢字詞的優勢(二)——以入聲韻和陽聲韻漢字爲中心」, 『高教學刊』, 15期, 2015, p.55.
 - 4) 광둥어(cantonese)란 표현은 광둥지역의 말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본고에서는 정식 학술 명칭인 粵語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음운 대조를 위하여 사용한 粵語의 語音은 粵語의 여러 분류 중 廣州話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문성호, 「廣州話 研究 - 音聲學的 觀點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7, 초록에 중국대륙에서 광둥어의 언어학적인 어가 ‘廣州話’로 통일되고 있다는 내용도 참고할 만 하다.

과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⁵⁾. 이에 먼저 두 언어의 어음이 형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粵語의 대표적인 방언인 廣州話의 입성운미와 양성운미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 한자음과 漢語의 中古音⁶⁾을 비교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광동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방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두 언어 간에 나타나는 음운의 유사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그 대응관계를 이해한다면 향후 본 연구 결과가 광둥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2. 粵·韓 漢字語의 語音 형성

1) 粵語의 語音 형성

粵語는 일반적으로 광둥어를 말하며, 廣府語라고도 일컫는다. 일명 白話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는 唐話라고 일컫기도 한다.⁷⁾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粵語의 명칭은 중국 고대 嶺南지역인 ‘남월(南越)’에서 유래한다. 『漢書』에서는 ‘南粵’이라고 하였는데, 고대 ‘越’과 ‘粵’은 通假字로 사용되었다. 先秦 古籍 중 장강 중하류 이남 지역의 부족에 대해서는 ‘越’이라고 불렀으며, 문헌상에는 ‘百越, 百粵, 諸越’이라고 하였는데, ‘吳越(蘇南, 浙北 일대)’, ‘閩越(福建一帶)’, ‘揚越(장강 중하류, 江淮之間)’ 등지를 포함하였다⁸⁾. 수당에 이르러서 ‘越’과 ‘粵’ 두 글자의 함의가 구별되기 시작하여, 전자는 江浙吳語지역, 후자는 嶺南의 兩廣(廣東, 廣西)을 지칭하였으며, 장기적으로 嶺南 지역의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粵語에 대하여 嶺南 兩廣 민간에서는 ‘白話’라고 불렀고, 중국 국내외에서는 ‘廣東話’, ‘廣府話’라고 하며, 아메리카주 차이나타운에서는 ‘唐話’라고 부른다. 이외에 廣州府地區(지금의 광주 및 주변 남변순지구)에서는 ‘廣府語’라고 하는 등 그 명칭이 다양하다. 광둥어라는 용어는 ‘광둥지방의 말’이라는 모호한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粵語를 지칭한다. 粵語는 또 크게 廣州를 중

5) 윤종연,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 한자음 성모의 유사성 비교 연구 - 중국 客家, 粵, 閩 방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 p.3.

6) 李新魁지, 박만규 역, 『中國聲韻學概論』, 大光文化社, 1990. p.97 隋·唐에서 宋代에 이르는 기간(A.D6C~A.D13C)은 중국어 발전과정에서 中古期에 해당하며 이 기간의 중국어를 中古音이라고 한다. 중고음이란 上古音으로부터 漢·魏·晉·南北朝의 近古音을 거쳐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7)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2020.07.01]

8) <https://www.newton.com.tw/wiki/%E5%BB%A3%E5%BA%9C%E8%A9%B1>-中文百科 [2020.07.01]

심으로 하는 廣府片 이외에 四邑片, 高陽片, 香山片, 莞寶片의 5개의 次方言⁹⁾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광둥성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권위를 가진 방언인 省都 廣州의 어음을 대표로 한다¹⁰⁾. 현재 중국 대륙 내 광둥어의 언어학적인 용어는 ‘廣州話’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이다¹¹⁾.

粵語를 사용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중국 嶺南의 광둥, 광서, 해남, 홍콩, 마카오 및 해외의 센트럴 커뮤니티인 서부 아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시, 오스트리아의 시드니, 멜버른, 크리스마스 제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벤쿠버, 토론토 등 해외 화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광둥에서 대략 6700만, 광서지역에 2500만, 홍콩 700만, 마카오 55만, 태국 500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500만, 미국과 캐나다 200만으로 대략 1억2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粵語를 사용한다¹²⁾.

粵語는 북방 古漢語에서 유래하며 비교적 오랜 시간의 언어 교류의 융합과 조정을 거쳐, 당대에서 성숙하고 송대까지 발전했는데 현대의 粵語와 차이가 크지 않아 고대 漢語의 특징을 잘 살려 보존하고 있다.

粵語를 사용하는 지역은 가장 이른 시기에 중원 지역과 접촉이 시작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본시 漢族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니었다. 秦이 ‘百越’¹³⁾의 땅을 정복한 이후 중원 지역의 한족이 남하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西晉말부터 唐을 거쳐 南宋말에 이르는 시기 전란 등의 이유로 인해 대량으로 남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함께 들어온 중원 지역의 방언이 粵語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각 지역에서 몰려온 유민과 상인들이 상호 교제를 위해 雅言을 사용하였고 점차 嶺南¹⁴⁾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漢代에 이르러 廣信(광둥의 封開와 광서의 梧州)지역에 ‘交趾刺史部’와 ‘交州’¹⁵⁾가 설치되어 공식적으로 雅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상업과 무역활동을 통해

9) 粵방언의 범위가 넓어서 다시 차방언으로 나누어지는데 廣府片, 四邑片, 高陽片, 香山片, 莞寶片이 바로 그것이다. 차방언은 방언 속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10) 詹伯慧, 「廣東粵語分區當議」, 『學術研究』, 第3期, 1988, pp.91-92.

11) 문성호, 「廣州話 研究 - 音聲學的 觀點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7, p.44.

12) <https://www.newton.com.tw/wiki/%E5%BB%A3%E5%BA%9C%E8%A9%B1-中文百科> [2020.10.01]

13) 百越是 중국 남쪽 해안 일대의 古越族이 분포해 살던 지역으로, 『漢書·地理志』에서 百越是 지금의 강소성 남부 지역의 동남해안을 따라 上海, 浙江, 福建, 廣東, 海南, 廣西,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민족들을 가리킨다.

14) 嶺南은 중국 남방 五嶺(越城嶺, 都龐嶺, 萌渚嶺, 騎田嶺, 大庾嶺)이남의 지역을 말하며, 대체로 廣西 동부 지역에서 廣東 동부, 그리고 湖南과 江西 등 5개의 省에 걸쳐 있다.

15) 漢武帝 때 交趾刺史部가 설치되었다가 동한 때 폐지되고 交州가 설치되었다. 한 무제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실크와 도자기 등으로 명주, 유리, 기석 등 해외의 진기한 물건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그 무역항로는 徐聞, 合浦를 출발하여 남류강, 북류강, 검강, 남강을 통해 광신에 이르는 다음, 賀江, 瀟水 등을 통해 中原으로 이어졌다.

점차 嶺南 전역으로 확대 전파되어 나갔다.

초기 粵語가 형성되기 시작한 漢·唐시대에는 중원 지역의 언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西晉의 ‘五胡亂華’¹⁶⁾ 이후 200여 간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방의 유목민족이 여러 차례 중원을 침입함에 따라, 그 충격으로 周代 이후 계승되어 왔던 문화 전통과 함께 雅言도 唐·宋代 이후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리적으로 지형이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던 嶺南 지역에서는 중원지역의 방언이 전래된 이후에는 중원지역의 언어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고대 중국어의 면모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등 오히려 雅言이 커다란 변화 없이 粵語 속에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본래 토착민들의 언어와 융합되어 현재의 粵語를 형성하게 되었다.¹⁷⁾

따라서 현재 광둥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粵語는 현지의 원시 언어라기보다는 漢·唐시기에 雅言이 河南과 河北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 지역의 유민과 함께 남방지역에 전해져 그 지역의 주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⁸⁾

일반적으로 粵語는 고대 嶺南 지역의 百越語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주된 기원은 고대 중원 일대에 유행하던 ‘雅言’¹⁹⁾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²⁰⁾

2) 한국 漢字語의 語音 형성

한자의 한반도 전래에 대해서 비록 한·중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국 초기 문헌에는 한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殷商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²¹⁾, 학계에서는 대략 2~3세기경 전래되어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²²⁾.

16) ‘五胡亂華’는 서진 멸망 후 선비족이 북위를 건립해 북방을 통일하면서 혼란기에 접어들었던 130년간을 말한다.

17) 윤종연,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 한자음 성모의 유사성 비교 연구 - 중국 客家, 粵, 閩방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 p.18.

18)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2020.10.01]

19) 雅言은 주나라 때 중원 일대의 민족 공동어로 사용되었던 중국 최초의 “보통어”이다.

20) 黃金寶, 「試論廣東地區學生學習韓國語漢字詞的優勢(二)-以入聲韻和陽聲韻漢字爲中心」, 『高教学刊』, 15期, 2015, p.55.

21) 俞曉紅, 「漢字在朝鮮半島的受容及其變遷」, 『漢字文化』, 第14期, 2019, p.52.

22) <https://ko.wikipedia.org> [2020.10.01] 한자의 한국 전래. 대략 기원전 2세기 경에 고대 한국에 한자가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기원전 2세기 경에 위만 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세워졌고,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한자의 전래를 추정

우리말은 흔히 알타이어계 언어에 속한 교착어로 분류되고 중국어는 漢藏語계에 속한 고립어로 두 언어가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해 있어 통사구조의 불일치와 음운체계의 불일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우리말에 쓰이고 있는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하는 대부분의 중국 借字는 대략 서기 600년 전후로 소급되는데 이때는 『切韻』의 中古音과 같은 시기이다²³⁾. 이후 借字法을 비롯해 鄉札, 吏讀 등이 등장하여 우리말 표기에 활용되었으며, 특히 吏讀은 삼국 시대에 발달하여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19세기 말까지 계승되어 우리말 한자음 표기에 활용되었다.²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자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편입되어 우리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끼쳤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조선시대 한글 창제와 함께 중원의 雅音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洪武正韻』²⁵⁾을 모방해 조선조에 서도 『東國正韻』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洪武正韻』은 명의 태조 주원장이 중국의 새로운 부흥을 편찬한 관용 표준운서이며,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말 한자음의 정리를 목적으로 申叔舟와 成三問 등에게 『東國正韻』의 편찬을 명하였는데, 『東國正韻』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말의 한자음을 중국의 雅言에 일치시키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글을 더 나아가 訓民正音으로 『洪武正韻』의 한자에 표음을 한 『洪武正韻譯訓』을 편찬하는 동시에 중국어 학습을 위해 방대한 『洪武正韻釋訓』을 줄인 『四聲通攷』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中原의 雅音이 우리말 한자음²⁶⁾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자어가 漢代 이후 唐·宋, 그리고 明을 거쳐 지속적으로 전래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과 한반도의 지형학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한자음 역시 粵語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원의 雅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한자음과 중국의 中古音이 같거나, 혹은 지극히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粵語와 한자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入聲韻尾 [-p], [-t], [-k]는 북방방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실되었는데,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대략 10세기경에 사라지기 시작하였다고 추정하므로²⁷⁾, 현재의 한자음에 漢語의 入聲韻尾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적어도 10세기 이

해 볼 수 있다.

23) 이돈주 역, 『中國音韻學』, 一志社, 1985, p.20.

24) 한국한자음 모태론(<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4>) [2020.10.01]

25) 명 태조 홍무 8년(1375) 樂韶鳳 등이 황명에 의해 펴낸 운서로서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中原의 雅音과 毛晃 부자의 『增修互注禮部韻略』을 토대로 편찬되었다.

26) ‘우리말 한자음’이란 표현은 이후 간략하게 ‘한자음’으로만 표기하였다.

27) 李瑞禾·曹晉英, 「古入聲在現代漢語方言區的保留與分化」, 『西昌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6卷

전 中古漢語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외에 양성운미 [-n], [-m], [-ŋ]는 中古이후에 비교적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 漢語의 각 지역 방언에서 다른 형식을 나타내게 되었으나²⁹⁾, 粵語와 한자어에서는 중고한어의 양성운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비교적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때 粵語와 한자음이 중고 이후의 한어 어음 변화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韓·粵 漢字語 音韻의 대조 분석

중고한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 한자음과 粵語 어음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말 한자음의 종성과 粵語의 韻尾 간의 비교를 통하여 그 규칙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한자음 운미는 上古漢語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고한어 운미를 비롯하여 각 方言의 어음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언어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漢語의 韻尾는 크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의 3가지로 나누는데³⁰⁾, 음성운은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운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양성운은 비음운미 [-n], [-m], [-ŋ]로 끝나는 韻을 말하며, 입성운은 塞音韻尾 [-p], [-t], [-k]로 끝나는 韻을 가리킨다. 入聲이라는 말은 빠르게 끊는 소리로, ‘흑(黑)’, ‘백(白)’, ‘녹(綠)’, ‘색(色)’, ‘백(百)’, ‘십(十)’, ‘곡(哭)’, ‘득(得)’ 등과 같이 운미가 [-p], [-t], [-k]로 구성되는 음절을 말한다. 이런 폐쇄음은 성문이 폐쇄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³¹⁾, 발음을 할 때는 입모양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粵語와 우리말 한자음 중에는 이와 같이 발음이 유사한 어휘가 많이 보인다. 지난

第2期, 2004, p.16. 입성운미인 [-p], [-t], [-k]의 소실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王力の 의견을 살펴보면 운미 [-p], [-t], [-k]는 북방 방언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라졌으며, 입성 [-p]가 가장 먼저 소실되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1292년 이전에 완성된 黃公紹의 『古今韻會』에는 아직 입성 [-k], [-t]가 남아 있었으나, 입성 [-p]는 이미 입성 [-t]와 합쳐졌고, 이후 『中原音韻』에 이르러서 입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사이에 오방언에서와 같이 입성운미 [-p], [-t], [-k]가 [ʔ]로 변화하는 [ʔ] 운미의 단계를 거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 여병창, 「韓國 漢字音 終聲과 漢語 韻尾 比較 考察」, 『외국학연구』, 제19집, 2012, p.85.

29) 여병창, 위의 책, p.83 재인용. 북방 방언은 운미 [-m]이 [-n]으로 대부분 변화하였고, 민방언의 경우는 [-m], [-n], [-ŋ]이 [-ŋ]으로, 호북, 호남 일대 방언은 [-m], [-n], [-ŋ]이 [-n]으로 각각 합병되었다. 이밖에 西南 일대의 방언에서는 [-m], [-n], [-ŋ] 운미가 탈락하였으며, 西北方言에서는 [-m], [-n], [-ŋ]의 탈락으로 비음화가 유발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30) 이신과 저, 박만규 역, 『中國聲韻學概論』, 大光文化社, 1990. p.66.

31) 유가·임진호, 「중국어와 한국어의 入韻尾 비교 연구 - 양주(揚州)방언의 入聲字를 중심으로」, 『한중언문학회연구』, 제63집, 2019.12, pp.145-164.

연구³²⁾에서 양주방언의 입성운미와 우리말의 입성운미와의 관계성을 연구하여 입증된 바와 같이, 입성운미 [k, p, t]가 우리말 한자어의 입성운미 [k, p, l]와 서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고음의 입성운미 [k, p, t]와 양성운미 [ŋ, m, n]가 粵語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³³⁾는 사실에 주목해 중고음을 기준으로 삼아 粵語가 우리말 한자음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응관계를 분석하고³⁴⁾, 더 나아가 粵語와 한자어의 자음과 모음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말 한자어와의 관계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韓·粵의 入聲韻 비교

<표1> 입성운미 [k]와 한자음의 음운 비교

漢字	中古音 ³⁵⁾	粵 ³⁶⁾	韓 ³⁷⁾	漢字	中古音	粵	韓
各	kak	kɔk	각[kak]	木	muk	muk	목[mok]
(睡)觉	kɔk	kɔk	각[kak]	目	mĩuk	muk	목[mok]
角	kɔk	kau ³⁸⁾	각[kak]	激	kiek	kɪk	격[kyak]
落	lak	lɔk	락[rak]	局	ǧiwok	kuk	국[kuɕ]
络	lak	lɔk	락[rak]	菊	kĩuk	kuk	국[kuɕ]
(稻)谷	kuk	kuk	곡[koɕ]	莫	mak	mɔk	막[mak]
曲	kʰiwok	kʰɔk	곡[koɕ]	郭	kuak	kuɔk	곽[kwak]

<표1>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중고음의 입성운미 [k]는 ‘角’를 제외하고 대부분 粵語와 한자음의 운미 [k]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같은 입성운미 [k]를 가진 粵語와 한자음의 자음 및 모음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음의 발음은 같지만 그렇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落[lak]”과 “絡[lak]”의 경우

32) 同註釋 1) 참조.

33) 李進立, 「識別入聲字的兩種方法」, 『新鄉學院學報』, 第35卷, 第10期, 2018, p.48. 廣州話의 어음을 예로 들면 “十 [sap]” “一 [jat]” “食 [sik]” 으로 읽을 수 있는데 입성이 粵語에 완전히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4) 入聲韻과 陽聲韻 漢字는 黃金寶의 논문 pp.55-56에 제시된 예를 근거로 편집하였음.

35) 본고의 한자 中古音은 王力 선생의 『王力古漢語字典』을 근거로 하였음.

36) ‘粵’은 粵語의 대표 방언인 廣州音을 가리킨다.

37) ‘韓’은 한국어 한자음을 가리킨다.

38) ‘角’의 語音 표기는 廣府片的 廣州音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바 廣府片的 32개 方言點의 語音 중 대부분(26개)을 차지하는 [kɔk]으로 발음을 취하였다. 이외에 新田蕃田, 西貢蠔涌(圍頭話)는 [æk]으로 北海(廉州鎮)는 [ke]로 北海(沙田鎮海邊話, 營盤鎮低話)는 [kak]으로 발음된다.

粵語에서는 [ɿ]로 나타나고, 한자음에서는 “ㄹ[r]”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粵語와 한자음의 모음 대응 관계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粵語의 운모 [ɔ]는 한자음의 모음 “ㅓ[a]”해당하며, 운모 [ɿ]는 한자음의 모음 “ㅓ[yʌ]”에 해당하며, 운모 [ʊ]는 한자음의 모음 “ㅜ[u]”, “ㅛ[o]”에 해당한다. 그리고 운모 [uɔ]는 한자음의 모음 “ㅜ[wa]”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례들을 통해 粵語와 한자음의 모음 대응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표2> 입성운미 [p] 한자음의 음운 비교

漢字	中古音	粵	韓	漢字	中古音	粵	韓
壓	ap	at	압[ap̚]	攝	ɕiɛp	ʃip	섭[sʰʌp̚]
葉	ʃiɛp	jiip	엽[yʌp̚]	十	ʒiɛp	ʃep	십[ɕiɔ̃p̚]
入	ɕiɛp	jep	입[iɔ̃p̚]	雜	dzɔp	tʃap	잡[tʃap̚]
納	nɔp	nap	납[nap̚]	集	dʒiɛp	tʃap	집[tʃiɔ̃p̚]
答	tɔp	tap	답[taɔ̃p̚]	執	tɕiɛp	tʃap	집[tʃiɔ̃p̚]
立	liɛp	lap/lep	립[riɔ̃p̚]	合	ɣɔp	hep/kep	합[haɔ̃p̚]
涉	ʒiɛp	ʃip	섭[sʰʌp̚]	協	ɣiɛp	hip	협[hyʌp̚]

<표2>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입성운미 [p]가 우리말에서는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중고음 “壓[ap]”은 입성운미 [p]가 粵語에서 [t]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성운미 [p], [t], [k]가 북방방언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입성운미 [p]가 제일 먼저 소실되었고, 입성운미 [k], [t]는 남아 있었으나, 입성운미 [p]가 입성운미 [t]와 병합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p]화는 드물고 [t]화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³⁹⁾ 이것은 입성운미 [p]가 粵語보다 한자음에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입성운미 [p]를 가진 粵語와 한자음의 자음 및 모음 대응관계를 정리해 보면, 우선 粵語에서 성모 [j]로 시작하는 발음이 한자음에서는 모음부터 시작된다는 알 수 있다. 즉 粵語의 성모 [n], [t], [l], [ʃ], [h/k], [tʃ]는 한자음의 자음 “ㄴ[n]”, “ㄷ[t]”, “ㄹ[r]”, “ㅅ[sʰ]”, “ㅎ[h]”, “ㅈ[ts]”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ㅈ[ts]”의 성모 [ʃ]가 대응하는 한자음의 발음은 [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ㅅ”의 발음이 뒤에 있는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변한 것이다. 그리고 粵語와 한자음의 모음 대응관계에 있어

39) 栗華益, 「試析漢語方言入聲韻尾-t化現象」, 『方言』, 第4期, 2016, p.470. 각주 26에서도 관련 내용을 이미 언급하였음.

서 粵語의 운모 [a]는 한자음의 모음 “ㅏ[a]”에 해당하며, 운모[e]는 한자음의 모음 “ㅣ[i]”에 해당한다. 그리고 粵語의 운모 [i]는 한자음의 모음 “ㅣ[ɿ]”나 “ㅣ[yɿ]”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3> 입성운미 [t] 한자음의 음운 비교

漢字	中古音	粵	韓	漢字	中古音	粵	韓
實	dʒiət	jet	실[sʰil]	察	tʃʰæt	tʃʰat	찰[tsʰal]
室	ɕiət	jet	실[sʰil]	徹	tʃʰiət	tʃʰit	철[tsʰɐl]
失	ɕiət	jet	실[sʰil]	秩	ɕiət	tit ⁴⁰⁾	질[tsil]
熱	ʃiət	jit	열[yɐl]	哲	ʃiət	tʃit	철[tsʰɐl]
越	ʃiwet	jyt	월[wɐl]	竊	tsʰiət	ʃit	절[tsɐl]
閱	ʃiwet	jyt	열[yɐl]				

일반적으로 중고음 입성운미 [t]는 한자음 운미[l]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나타나는 데, <표3>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粵語의 입성운미 [t]는 중고음의 운미 [t]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나 粵語의 입성운미 [t]는 한자음에서 [l]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중고 한어의 운미 [t]가 한자음에서 모두 [l]로 발음되는 특수한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한어 자체에 운미 [-r]이 있었고 한국 한자음은 상고 한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과, 또 다른 하나는 한국 한자음의 [l]이 어음상의 특징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로 ‘걷다[kət’ta](走)’뒤에 모음이 올 때, ‘걸으니[kəl’i’ni]’이나 ‘걸어서[kəl’ə’sə]’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⁴¹⁾.

지금까지 粵語와 한자음의 일대일 운미 관계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대응관계를 살펴본데, <표3>과 <표2>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양자의 유사성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粵語에서 성모 [j]로 시작하는 발음은 한자음에서 모음부터 시작되며, 성모 [j]는 한자음의 자음 “ㅈ[s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粵語의 성모 [tʃʰ]와 [tʃ]가 한자음의 자음 “ㅊ[tsʰ]”와 대응하며, 성모 [j]와 [t]는 한자음의 자음 “ㅈ[ts]”과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음의 대응관계에 있어서는 <표2>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즉 粵語의 운모 [a]와 [e]가 한자음의 모음 “ㅏ[a]”와 “ㅣ[i]”에 해당하며, 운모 [i]는 한자음의 모음 “ㅣ

40) 廣府片의 30개 방언점 중 별도로 廣州가 표기되지 않음. 다만 19곳이 ‘tit’로 발음되며, ‘tip’ 5곳, ‘tek’ 2곳, ‘tek’(1곳) ‘tsit’(1곳) ‘tʰit’2곳,

41) 여병창, 위의 책, p.87.

[ʌ]”나 “ㄷ[y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또한 “ㅣ[i]”와도 대응할 수 있으며, 粵語의 운모 [y]는 한자음의 “위[wʌ]”와 “ㄷ[yʌ]”와도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韓·粵 陽聲韻 비교

양성운미로는 [-n], [-m], [-ŋ]의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 한자음에서도 일반적으로 [-n], [-m], [-ŋ]으로 읽혀지므로 이 둘 사이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대응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⁴²⁾

일찍이 黃金寶(2015)는 자신의『試論廣東地區學生學習韓國語漢字詞的優勢(二)』⁴³⁾에서 粵語에 나타나는 입성운미와 양성운미를 통해 한자음과의 유사점에 대해서 밝힌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대응관계에 있는 粵語와 우리말 한자음의 양성운미를 일대일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4> 양성운미 [ɲ] 한자음의 음운 비교

漢字	中古音	粵	韓	漢字	中古音	粵	韓
江	kɔŋ	kœŋ	강[kan]	公	kuŋ	kuŋ	공[kon]
降	kɔŋ	kɔŋ	강[kan]	廣	kuaŋ	kuoŋ	광[kwan]
鋼	kaŋ	kɔŋ	강[kan]	宮	kíuŋ	gung ⁴⁴⁾	궁[kun]
強	gían	kʰœŋ	강[kan]	講	kɔŋ	kɔŋ	강[kan]
輕	kʰiɛŋ	hɛŋ/ɪŋ	경[kyʌŋ]	孔	kʰuŋ	huŋ	공[kon]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粵語와 한자음 가운데 중고음 양성운미가 대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粵語의 성모는 [k], [kʰ], [h], [g]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자음 자음에서는 유일하게 “ㄱ[k]”으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粵語의 운모 [œ], [ɔ]는 한자음의 모음 “ㅏ[a]”에 대응되며, 모음 [ɛ], [ɪ]는 한자음의 모음 “ㅓ[yʌ]”와 대응관계에 있으며, [ɔ], [wo], [u]는 한자음의 모음 “ㅜ[o]”, “ㅗ[wa]”, “ㅜ[u]”와 각각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輕’은 중고음의 성모가 [kʰ]이고, 粵語가 [h]이며 한자음은 [k]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말 한자음이 더 중고음에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여병창(2012), 「韓國 漢字音 終聲과 漢語 韻尾 比較 考察」, p.80.

43) 黃金寶(2015), 「試論廣東地區學生學習韓國語漢字詞的優勢(二)」, 『高教學刊』, 第15期, pp.55-56.

44) <https://www.zdic.net/hans/宮> ; 音韻方言에 ‘片’별 ‘方言點’별로 별도 구별되어 있지 않아 粵語 gung1으로만 어음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적용함.

<표5> 양성운미 [m] 한자음의 음운 비교

漢字	中古音	粵	韓	漢字	中古音	粵	韓
感	kɒm	kem	감[kam]	沈	ɕiɛm	tsʰem ⁴⁵⁾	침[tsʰim]
金	kʰiɛm	kem	김[kim]	監	kam	kam ⁴⁶⁾	감[kam]
錦	kʰiɛm	kem	금[kwum]	侵	tsʰiɛm	tʃʰem	침[tsʰim]
男	nɒm	nam	남[nam]	範	bʰiwem	fan	범[pʌm]
藍	lam	lam	람[ram]	廉	liɛm	lim	렴[ryʌm]
林	liɛm	lem	림[rɪm]				

<표5>에서 살펴보면 粵語와 한자음 가운데 중고음 양성운미 [m]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粵語 중에서 範[fan]과 같이 양성운미가 [n]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粵語의 성모 [k], [n], [l], [tʃʰ]은 한자음의 자음 “ㄱ[k]”, “ㄴ[n]”, “ㄹ[r]”, “ㄷ[tsʰ]”과 각각 대응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다고 하겠다. 그리고 粵語의 운모 [ɛ]은 한자음의 모음 “ㅏ[a]”, “ㅣ[i]”, “ㅡ[u]”와 대응하며, 운모 [i]는 우리말의 모음 “ㅓ[yʌ]”와 대응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표6> 양성운미 [n] 한자음의 음운 비교

漢字	中古音	粵	韓	漢字	中古音	粵	韓
春	tɕʰiuɛn	tʃʰɒn	춘[tsʰun]	先	sien	ʃin	선[sʰʌn]
欢	huan	fun	환[hwan]	韩	ɣan	hon ⁴⁷⁾	한[han]
片	pʰien	pʰin	편[pʰyʌn]	恨	ɣən	hen	한[han]
亲	tsʰiɛn	tʃʰen	친[tsʰin]	婚	huən	fen	혼[hon]
判	pʰuan	pʰun	판[pʰan]	简	kæn	kan	간[kan]
版	pan	pan	판[pʰan]	单	tan	tan	단[tan]
变	pʰiɛn	pin	변[pyʌn]	诞	dan	tan ⁴⁸⁾	단[tan]
勤	ɡiɛn	kʰen	근[kwun]				

45) 廣府片의 31개 방언점 중 별도로 廣州가 표기되지 않음. 다만 22곳이 ‘tsʰem’로 발음되며, ‘tsʰen’ 3곳, ‘tʃʰem’ 5곳, ‘tʃʰen’(1곳) ‘

46) 廣府片의 27방언점 중 별도로 廣州가 표기되지 않음. 다만 23곳이 ‘kam’로 발음되며, ‘kan’ 2곳, ‘kaŋ’ 2곳, ‘

47) <https://www.zdic.net/zd/yy/zgy/韓> ; 音韵方言에 ‘片’별 ‘方言點’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粵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粵語와 한자음에서 모두 예외 없이 중고음 양성운미 [n]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粵語의 성모 [tʰ], [t], [ʃ], [pʰ]는 한자음의 자음 “ㄷ[tsʰ]”, “ㄷ[t]”, “ㅅ[ʃ]”, “ㅍ[pʰ]”에 각각 대응되며, 성모 [f], [h]는 한자음의 ‘ㅎ[h]’와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粵語의 성모 [p]는 한자음의 자음 “ㅂ[p]”와 “ㅍ[pʰ]”에 대응되며, 성모 [kʰ], [k]는 한자음의 “ㄱ[k]”와 대응하고 있다. 운모 대응관계에 있어서는 粵語의 운모 [ø]가 한자음의 모음 “ㅓ[u]”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운모 [e]은 한자음의 모음 “ㅏ[a]”, “ㅣ[i]”, “ㅡ[w]”, “ㅜ[o]” 등과 대응하며, 성모 [i]는 한자음의 모음 “ㅣ[yɿ]”, “ㅣ[ɿ]” 등과 대응한다. 그리고 운모 [u]는 한자음의 모음 “ㅏ[wa]”, “ㅏ[a]”와 대응하며, 운모 [a], [o]는 한자음의 모음 “ㅏ[a]”와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粵語와 한자음의 일관된 규칙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다만 관계빈도가 높은 대응관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표7> 粵語와 한자어의 음운 대응관계표

분류	粵語	한자음	분류	粵語	한자음
입성운미 [k]	[k]	ㄱ[k]	양성운미 [ŋ]	[ŋg] / [ŋ]	ㅇ[ŋ]
성모/자음	[k] / [g]	ㄱ[k]	성모/자음	[k] / [kʰ] / [h] / [g]	ㄱ[k]
	[l]	ㄹ[r]			
	[m]	ㅁ[m]			
운모/모음	[o]	ㅏ[a]	운모/모음	[œ] / [ɔ]	ㅏ[a]
	[u] / [o]	ㅜ[o]		[e] / [i]	ㅣ[yɿ]
	[i]	ㅣ[yɿ]		[u]	ㅜ[o]
	[ʊ]	ㅓ[u]		[wo]	ㅏ[wa]
	[uo]	ㅏ[wa]		[u]	ㅓ[u]
입성운미 [p]	[tʰ] / [p]	ㅂ[p]	양성운미 [m]	[m] / [n]	ㅁ[m]
성모/자음	j	모음 시작	성모/자음	[k]	ㄱ[k]
	[n]	ㄴ[n]		[n]	ㄴ[n]
	[t]	ㄷ[t]		[l]	ㄹ[r]
	[l]	ㄹ[r]		[tsʰ] / [tʰ]	ㄷ[tsʰ]
	[ʃ]	ㅅ[ʃ] / ㅆ[ɕ]		[f]	ㅍ[p]
	[h]/[k]	ㅎ[h]			
	[tʃ]	ㅈ[ts]			

語 hon4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함.

48) 廣府片의 32개 방언점 중 별도로 廣州가 표기되지 않음. 다만 24곳이 ‘tan’로 발음되며, ‘taŋ’ 7곳, ‘tæŋ’ 1곳.

운모/모음	[a]	ㅏ [a]	운모/모음	[a]	ㅏ [a] / ㅑ [ɛ]
	[e]	ㅣ [i]		[e]	ㅓ [a] / ㅣ [i] / ㅡ [u]
	[i]	ㅓ [ɛ] / ㅕ [yɛ]		[i]	ㅕ [yɛ]
입성운미 [t]	[t]	ㄷ [l]	양성운미 [n]	[n]	ㄴ [n]
성모/자음	[j]	모음 시작	성모/자음	[tʰ]	ㅌ [tsʰ]
	[ʃ]	ㅅ [sʰ]		[f] / [h]	ㅎ [h]
	[tʰ] / [t]	ㅊ [tsʰ]		[pʰ]	ㅍ [pʰ]
	[ʃ] / [t]	ㅈ [ts]		[p]	ㅍ [pʰ] / ㅂ [p]
운모/모음	[a]	ㅏ [a]		[kʰ] / [k]	ㄱ [k]
	[e]	ㅣ [i]		[ʃ]	ㅅ [sʰ]
	[i]	ㅓ [ɛ] / ㅕ [yɛ] / ㅣ [i]		[t]	ㄷ [t]
	[y]	워 [wɛ] / ㅕ [yɛ]		[ø]	ㅓ [u]
				[u]	ㅓ [wa] / ㅏ [a]
운모/모음			운모/모음	[i]	ㅕ [yɛ] / ㅑ [ɛ]
				[e]	ㅣ [i] / ㅡ [u] / ㅓ [o] / ㅏ [a]
				[a] / [o]	ㅏ [a]

위와 같이 본고에서는 粵語와 한자음의 음운 대조 분석을 통해 粵語와 한자음의 음운 대응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물론 粵語와 한자음의 음운 대응관계에서 일대일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표8> 粵語와 한자음의 기본적인 음운 대응관계

분류	粵語	분류	분류	粵語	한자음
성모	[k]	성모	운모	[a]	ㅏ [a]
	[l]	[l]		[ɔ]	ㅓ [a]
	[m]	[m]		[i]	ㅕ [yɛ]
	[n]	[n]		[e]	ㅣ [i]
	[ʃ]	[ʃ]		[o]	ㅓ [o]
	[t]	[t]			
	[j]	[j]			
	[tʰ]	[tʰ]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漢字 中古音を 기준으로 삼아 광동의 粵語와 우리말 한자어의 음운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粵語와 한자음이 입성운미와 양성운미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입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선 입성운미 [k]와 양성운미 [n]은 粵語와 한자음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반면, 입성운미 [p]는 광동어에서는 [t]/[p]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우리말 한자음에서는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성운미 [t]가 粵語에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반면, 한자음에서는 [l]로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성운 [ŋ]이 粵語에서 [ng]/[ŋ]로 나타나는데 비해 한자음에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양성운 [m]이 粵語에서 [m]/[n]로 나타나는데 한자음에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또한 위의 본문 <표8>에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粵語와 우리말 자음과 모음의 기본적인 대응 관계에 있어서 粵語의 성모와 우리말 한자음의 자음 관계는 [k]→[ㄱ], [l]→[ㄴ], [m]→[ㅁ], [n]→[ㄴ], [ʃ]→[ㅅ], [t]→[ㄷ], [tʰ]→[ㅈ], [j]→[ㅇ] 등으로 나타나며, 운모의 대응관계는 [a/ɔ]→[ㅏ], [i]→[ㅣ], [e]→[ㅓ], [o]→[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 연구를 토대로 종합해 보건데, 중고음 [p, t, k]이 양주방언에서는 입성운미가 모두 [-ʔ]로 약화되어 있는데 비해 粵語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말 한자음과 粵語가 유사한 입성운과 양성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음(초성)과 모음(중성)이 기본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현대 북방 방언과 표준어에 비해 粵語와 우리말 한자음은 모두 입성운미, 양성운미[m]를 유지하고 있어 북방 방언을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보다 粵語를 모국어로 하는 광동지역 학습자가 입성운미, 양성운미(m) 한자어를 습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다. 粵語와 한자어 간의 운미상의 공통점과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자음의 입성운미 [k],[p]는 粵語에서도 똑같이 발음되므로, 광동성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사투리 발음을 통해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다.

둘째, 粵語의 입성운미[t]는 한자음인 [ㄷ]과 대응하므로 광동 지역의 중국어 학습자들은 이런 대응관계를 이용해 이 부분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된다.

셋째, 한국어 한자음에서 양성운미 [n], [m], [ŋ]는 粵語에서도 거의 같은 음을 내

므로, 광둥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는 같은 운미의 발음을 통하여 한국어 한자음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양성운미(m)는 현대 중국어는 사라졌으나 광둥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광둥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가 북방의 한국어 학습자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粵語를 사용하고 있는 광둥 지역의 유학생들이 한국어 한자음과 粵語 모두 고대 중국어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언의 발음과 한자음 간의 운미상의 공통점과 대응 관계를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방언의 발음을 이용하여 한국어 한자어의 발음을 예측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말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⁴⁹⁾ 또한 향후 중국의 타 지역 방언과 우리말의 지속적인 음운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 각 지역의 방언과 한자음과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49) 이해우, 『현대중국어음운론』, 신아사, 2013, pp.18-19. 중고음 입성자 운미를 한국의 한자음은 매우 잘 보존하고 있으며 그 대응 규칙도 정연하다. 즉 중고음 입성 [p], [k]는 그대로 보존되고 중고음 [t] 운미는 한국한자음의 [l] 운미와 대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대응관계는 거의 예외가 없어 한국인이 중고음의 입성자를 인식하는데 중국인보다 훨씬 좋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고음 입성 [p], [t], [k]는 남방방언에는 잘 보존되고 있으나 북방방언에는 상당 부분 탈락되었으면 북경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강은지, 「중국 방언 화자들을 대상으로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를 위한 제언 - 음절 말 자음 습득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중언문학연구』, 제42호, 2020, p.219.
- 문성호, 『廣州話 研究 - 音聲學的 觀點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7, p.1. p.44.
- 여병창, 「韓國 漢字音 終聲과 漢語 韻尾 比較 考察」, 『외국학연구』, 제19집, 2012, pp.83-85.
- 유 가·임진호, 「중국어와 한국어의 入韻尾 비교 연구 - 揚州방언의 入聲字를 중심으로」, 『한중언문학연구』, 제63집, 2019.12, p.145-164.
- 윤종연,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 한자음 성모의 유사성 비교 연구 - 중국 客家, 粵, 閩 방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 p.3.
- 이돈주 역, 『中國音韻學』, 一志社, 1985, p.20.
- 이신피 지, 박만규 역, 『中國聲韻學概論』, 大光文化社, 1990. p.97.
- 이해우, 『현대중국어음운론』, 신아사, 2013, pp.18-19.
- 黃金寶, 「試論廣東地區學生學習韓國語漢字詞的優勢(二)——以入聲韻和陽聲韻漢字爲中心」, 『高教学刊』, 15期, 2015, pp.55-56.
- 李進立, 「識別入聲字的兩種方法」, 『新鄉學院學報』, 第35卷, 第10期, 2018, p.48.
- 李瑞禾·曹晉英, 「古入聲在現代漢語方言區的保留與分化」, 『西昌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6卷 第2期, 2004, p.16.
- 栗華益, 「試析漢語方言入聲韻尾-t化現象」, 『方言』, 第4期, 2016, p.470.
- 俞曉紅, 「漢字在朝鮮半島的受容及其變遷」, 『漢字文化』, 第14期, 2019, p.52.
- 詹伯慧, 「廣東粵語分區當議」, 『學術研究』, 第三期, 1988, pp.91-92.
- <https://ko.wikipedia.org> [2020.10.01]
- <https://www.zdic.net> [2020.10.01]
- <https://www.newton.com.tw> [2020.07.0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광둥어, 한국 한자음, 입성운, 양성운, 한어중고음					
	영문	Cantonese, Sino-Korean word, Ipseong-coda, Yangseon-coda, Mid-ancient Chinese Sounds					
<div><div>A Study on the Phonological Comparison of Cantonese and Sino Korean words : Focused on the Ipseong-coda, Yangseon-coda</div><div>Im, Jin-Ho · Kim, Mi-Lang</div></div> <div>As everyone knows, Koreans have borrowed and used Chinese characters, and the pronunciation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preserves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Chinese. To clarify this causal relationship, a previous study looked at the response between Yangzhou dialect and Sino-Korean word, focusing on Ipseong-coda.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 are various ethnic groups and dialects in China, studying only certain regions of China is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Ipseong-coda both Korea and China.</div> <div>Therefo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ancient Chinese word Ipseong-coda and Yangseon-coda are well preserved in Cantonese, this paper studied the phono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Cantonese and Sino-Korean word.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formation process of Cantonese and Korean Chinese characters, and then organized and analyzed the response relationship of pronunciation between Mid-ancient Chinese Sounds, Guangzhou-hua, the representative dialect of Cantonese, and Sino-Korean word to find out the association of phonology. In particular,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Cantonese is similar to Sino-Korean word, and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in Guangdong will be able to learn Korean more easily if they recognize the similarity of phonemes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understand the correspondence.</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임진호 / 任振鎬 / Im, Jin-Ho			김미랑 / 金美娘 / Kim, Mi-Lang		
	소 속	草堂大學 國際學科			草堂大學 國際學科		
	Em@il	jhim@cdu.ac.kr			mrkim@cdu.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28	게재확정일	2020.12.15	